

과제문③

소를 탄 노인

맹사성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검소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임금을 옆에서 도와주는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낼 때도 허름한 옷을 입고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이 고향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승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향 마을의 원님은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막으며 맹사성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이 다가가 보니, 소를 탄 노인이 포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번거로운 행차를 싫어하는 맹사성은 나이 어린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소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 그 모양새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포졸은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정승이 지나가시기도 전에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맹사성은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길은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지나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요?”

원님도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늙은이야, 정승이 오신다고 해서 잘 청소해 놓은 길이다. 네가 누군데 이 길을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 게냐?”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은 웃으며 원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맹사성이 소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यो.”

그 말을 들은 원님과 포졸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課題文③

牛に乗った老人

メンサソンはいつも謙遜な姿勢で慎ましく暮らしていた人です。王様のそばでお世話をする‘政丞’^{チョンスン}という官職についていた時も古びた服を着て牛に乗っていました。

ある日、メンサソンが故郷の村に行く事になりました。政丞^{チョンスン}が村に来るという知らせを聞いた故郷の村の郡守は、道をきれいに掃除して他の人たちが通れないように道をふさぎ、メンサソンが来るのを待ちました。

その時、騒がしい音が聞こえてきました。郡守が近づいてみると、牛に乗った老人が捕吏^{ほり}（罪人をめしとる役人）と言い争いをしていました。面倒な行幸^{ぎようこう}が嫌いなメンサソンは、年の若い下人をひとりだけ連れて牛に乗って道に立ちましたが、その姿は落ちぶれた田舎の老人でした。

ひどく頭にきた捕吏^{ほり}は、メンサソンに気づかずに大声でさげびました。
「身のほど知らずにも政丞様^{チョンスン}がお通りになる前にこの道を通ろうというのか？」

するとメンサソンは平然として言いました。
「おいおい。道は人が通るためにあるものなのに、どうして通さないのだ？」

郡守様もメンサソンに気づかずに大きな声でとがめました。
「この老人め。政丞様^{チョンスン}が来られるというからきれいに掃除した道だ。お前が何様だ^{なにさま}と思ってこの道を先に通ろうとするのだ？」

この言葉を聞いたメンサソンは笑いながら郡守に答えました。
「メンサソンが牛に乗って故郷に帰るところだ。」

その言葉を聞いた郡守と捕吏^{ほり}は驚いて顔を真っ赤にし、頭を下げました。